

순천만정원박람회 '작품 공모전' 참여 열기 후끈

20개국서 167개 작품 접수
국제적 미래정원 모델 제시
50개 작품 선정 박람회 전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다섯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원작품 경연대회'에 20개국 160여 작품이 출품되는 등 박람회 참여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최근 15일 마감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정원작품 경연대회 참여작가 모집' 공모에 20개국 167개 작품(국내 148, 국외 19)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불입 조정과 국제적 정원 모델을 제시하고 정원문화 확산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의 작품은 박람회 기간 '순천만가든쇼'라는 이름으로 전시된다.
공모는 '정원에 삽니다' (주제)와 '나만의 정원' (부제)을 주제로 지난 1일 시작해 15일까지 국내외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50

개 작품이 선정될 계획이다.
접수 결과 3.34:1의 경쟁률을 나타내며 국제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조직위는 이달 중 1차 서류심사를 거쳐 실내정원은 봄, 가을로 구분해 각각 20개 작품, 실외는 10개 작품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작품은 내년 3월 31일까지 박람회장에 실물로 조성돼 박람회 기간 동안 전시된다.
이어 최종 선정작 50점은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평가를 거쳐 15점의 우수 작품을 선정하고 박람회 개막식에 맞춰 시상할 계획이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관계자는 "국제행사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품격에 걸맞은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아 국제적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작품 전시로 2023정원박람회의 해외 관람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로 내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저류지 정원 등 도심 일원에서 개최된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다섯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원작품 경연대회'에 160여 작품이 출품되는 등 박람회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 전경. <순천시 제공>

광양증마도서관 시니어 정보능력 향상 스마트폰 활용 교육

광양증마도서관이 오는 12월부터 디지털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들의 정보 활용 능력향상을 위해 '스마트폰 활용 교육' 수업을 진행한다.
세대별 인문 강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이번 교육은 60세 이상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6-15일 매주 화, 목요일 총 4회에 걸쳐 증마도서관 3층 인문학실에서 대면으로 진행한다.
스마트폰 활용 교육은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 익히기 ▲카카오톡 활용하기 ▲유튜브 활용하기 ▲사진 편집하기 ▲슬라이드 메시지 만들기 등 실생활과 여가활동에 필요한 스마트폰 사용법 위주로 운영될 예정이다.
수업 진행을 위해 수강생은 스마트폰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인 스마트폰만 실습할 수 있다.
신청은 11월 22일부터 광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gwangyang.go.kr) 또는 전화(061-797-3882)로 선착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미라 도서관운영과장은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의 정보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수업이 시니어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 백운장학회, 419명에 장학금 6억 1574만원 지급

초등생 30만원·대학생 250만원
특기지도 우수학교 7개교도 포함

광양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매년 장학생을 선발하는 (재)백운장학회가 2022년 장학금 지급 대상자 419명을 확정했다.
백운장학회에 따르면 지난 8월 531명의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서류 심사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 419명에게 6억 1574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학생 일반선발의 경우 성적우수 장학생은 학생 성적과 부모의 소득수준을 종합적으로 평

가해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 학업 지원 장학생의 경우 소득만을 기준으로 고득점자순으로 평가한다.
분야별 선발인원은 대학생 281명, 유학생 2명, 특기 장학생 33명, 선행 장학생 9명, 다문화가정 9명, 다자녀가정 59명, 광양경찰서와 광양소방서 자녀 지정 기탁 14명, 이사회 추천 5명, 특기지도 우수학교 7개교다.
학생별 장학금 지급액은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70만원, 대학생 150만~250만원이며, 특기 지도 우수학교는 150만원이다.
장학금은 백운장학회에서 가입한 정기예금 이자 수의 및 시민·기업 기부금으로 지급되며, 예금

이 만료되는 다음 달 28일 학생 계좌에 입금할 예정이다.
백운장학회는 장학생 선발 외에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고등학생 학업장려 장학금 등 2022년 연간 1307명에게 8억 33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백운장학회는 1991년 설립돼 시민과 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로 24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지금까지 1만1961명의 학생에게 108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2022년 백운장학금 장학증서는 12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수여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운영자 모집...28일 접수 다문화가족 등 18명 선발

여수시가 '여수밤바다 낭만포차'를 새롭게 이끌어갈 7기 운영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여수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신청인 및 배우자의 사업등록이 있어야 한다. 단 신청인과 그 직계혈족,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며느리와 사위 포함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28일 여수문화원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최종 모집인원은 18명으로 일반시민 5명, 청년층 7명, 인근 지역주민 3명, 기타(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북한이탈주민) 3명을 부문별로 나눠 선발하게 된다.
평가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1차 서류심사에서 부문별 모집인원의 3배수인 54명을 선발한 후 2차 음식평의회에서 18명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전년보다 신청 자격 및 제외대상, 2차 음식평의회 기준 등을 명확히 정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모집에 선발된 7기 운영자 18명은 위생교육 등을 이수한 후 내년 3월부터 1년간 낭만포차를 운영하게 된다.
모집 부문별 자격이나 신청 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여수시 도시재생과(061-659-455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여수밤바다 낭만포차는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전국적인 핫플레이스이다. 뛰어난 맛과 친절함 서비스로 낭만포차의 명성을 빛내주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보성군 회천면, 취약계층 김장 나눔 행사

보성군 회천면여성자원봉사회(회장 박명숙)는 지난 21일 회천 동울복지회관에서 자원봉사회원 및 회천면희망드림협의회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열어 지역 내 취약계층 가구 70여 명에게 전달했다. <사진>

박명숙 회장은 "매년 김장철을 맞아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개최해 관내 저소득층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나눔의 행복이 곳곳에 퍼져 관내 이웃들이 훈훈한 연말을 보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명혁 회천면장은 "바쁜 가운데에서도 매년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를 해 주시는 회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마음이 이웃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라며, 지역주민 모두가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회천면여성자원봉사회는 지속적으로 나눔 실천 및 환경정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곡성군 농특산물 온라인 기획전 29일까지...농가·단체 10곳 참여

곡성군 대표 농특산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획전이 열린다.
곡성군은 오는 29일까지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단독 기획전 '곡성을 담은 로컬 상생 기획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SNS 및 동영상 플랫폼 사용자 증가에 맞춰 농특산물의 마케팅 경로를 다각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1위 레시피 전문 플랫폼 만개레시피와 함께 진행되며 온라인 커머스인 만개스토어에서 곡성군 대표 특산물인 토란, 백세미, 삼기 흑장우수수를 비롯해 다양한 가공 상품을 선보인다.
곡성군 관계자는 농특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가공하는 농가 및 단체 10개소가 참여해 지역만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차별화할 수 있는 우수 농특산물로 상품을 구성했다며 기획전에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이번 로컬 상생 기획전의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메이드인 곡성 사과주스', '토란국수' 등 농특산물 가공상품에 대해 기존 오프라인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온라인 유통 판로를 개척할 계획이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kwangju.co.kr

여수시, 체육시설 사업 선정 사업비 12억 3500만원 확보

여수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체육진흥시설 공모에 6개 사업이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서 체육시설 지원 3개 사업과 2023년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준비 3개 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선정돼 총 12억 3500만 원의 사업비를 받게 됐다.
공공체육시설 지원으로는 ▲진남경기장 잔디교체 ▲광마국민체육센터 기계설 개보수 ▲광마케이트볼 보조구장 건립 등 3개 사업이 선정됐다.
2023년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준비 사업으로는 ▲진남야구장 바닥 등 노후시설물 개보수 ▲진남체육관 조명 등 노후시설물 개보수 ▲소호요트장 노후시설물 개보수 3개 사업이 선정돼 전국체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앞서 시는 내년 10월 전라남도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49개 종목(정식 46, 시범 3) 중 4개 종목(야구소프트볼, 배드민턴, 요트, 트라이애슬론)을 유치한 바 있다.
시는 전국체전의 완벽한 준비와 시민 편의증진을 위해 실시예 및 업체 선정 등을 거쳐 내년 8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전국체전 준비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실시예 등을 거쳐 내년 8월 이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시, 롯데케미칼 2056억 투자유치

여수국가산단에 생산시설 건립
420명 직·간접 고용창출 효과

여수시가 여수산단 내 2000억원 대 투자유치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여수시는 지난 21일 롯데케미칼㈜과 여수국가산단 내 2056억 규모의 제조공장 및 배터리 사업 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정기명 여수시장과 롯데케미칼(주)황진구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케미칼(주)여수1공장에서 열렸다.
협약서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주)여수1공장에 페인트, 생활용품 중점제 원료로 사용되는 헤셀로스 제조공장과 바나듐 배터리 전해액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특히 여수국가산단단지 내 6Block에는 향후 신규 공장 건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

정이다.
시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주)의 이번 생산시설 및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약 420명의 직·간접 고용창출과 건설기간 중 연인원 약 1500명의 고용효과가 예상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에서는 원활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롯데케미칼(주) 황진구 기초소재사업 대표는 "금번 투자는 롯데케미칼(주)이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유지하고, 차세대 배터리 소재 생산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동시에 추가로 신규 투자를 검토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협력 회사들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롯데케미칼이 우리나라를



협약식에 참여한 정기명(왼쪽) 여수시장과 롯데케미칼(주) 황진구 기초소재사업 대표.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더 크게 성장해 지역과 의 상생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앞으로도 고부가가치 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